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K-GAAP 적용기업과 K-IFRS 선택기업의 비교 -

박홍규* · 이유선** · 전규안***

<요 약>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적용해야 하는 반면에 비상장기업은 K-IFRS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주(主) 회계기준으로 사용하고, K-IFRS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K-IFRS를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회계기준인 K-GAAP을 선택한 비상장기업과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기준의 선택이 가능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간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이 K-GAAP을 적용한 비상장기업보다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더 적게 하고, 개별재무제표에서는 K-IFRS를 적용한 기업이 K-GAAP을 적용한 기업보다 회계적 이익조정은 적게, 실물적 이익조정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이 이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K-IFRS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14년부터 시행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 이후 K-IFRS를 적용한 기업의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New ISA 600의 정책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비상장대기업의 분류기준인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에 비해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K-GAAP과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의 연결·별도·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비교·분석한 논문으로서 비상장기업의 K-IFRS 확대적용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비상장기업, K-GAAP, K-IFRS, 이익조정, 제량적 발생액, 실물이익조정, New ISA 600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phk434@gmail.com, 주저자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2yyus@naver.com, 공동저자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교수, kajeon@ssu.ac.kr, 교신저자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였고 감독기준도 강화하였다. 특히, 1999년 9월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설립되었고, 2007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라고 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부터 상장기업에 조기적용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과 주요 금융기관들이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존의 ‘규정중심 회계(Rules based approach)’에서 ‘원칙중심 회계(Principles based approach)’로 전환됨으로써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를 허용하게 되어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주(主)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었고 다양한 회계처리의 판단 근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되어 감사인의 외부감사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K-IFRS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회계시스템 구축비용, 감사비용, 내부회계제도 관련 전문가 확충 등)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이라고 함)을 주(主) 재무제표로 사용하고 있고, K-IFRS는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1년 이후에는 모든 기업이 K-IFRS를 적용한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主) 회계기준이 K-GAAP으로 확정되었고, K-IFRS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년 이후 K-IFRS 선택 적용기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K-IFRS를 적용한 기업이 2010년 84개 회사에서 2017년 1,783개 회사로 약 21배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K-IFRS를 적용한 기업도 2010년 17개 회사에서 2017년 599개 회사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K-GAAP이 비상장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은 모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회계기준의 일치성을 위하여 K-IFRS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고, 상장예정법인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많아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기업이 K-IFRS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요구에 따른 선택일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K-GAAP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부감사법’이라고 함)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외감법인과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어 감사인이 K-GAAP 적용기업 감사 시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연결처리의 적정성 검토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다.¹⁾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K-IFRS 도입 전후의 가치관련성 연구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비교한 이익조정 연구가 진행되었고, 연구결과도 이익조정에 대해 일관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9.17. “新외감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 있는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主)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에 대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할 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결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비상장기업의 원칙적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이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있어서 어떤 회계처리방법이 더 회계품질이 높은지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를 정책담당자에게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애와 최종서(2014)는 K-IFRS의 자발적 도입 전후를 비교하였고, 김승일과 박성중(2018)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을 비교하였으며, 정아름과 김성환(2016)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조기 도입기업(2003년~2008년)과 자발적 도입기업(2011년~2014년)으로 구분한 이후 K-IFRS 도입 전후 기업의 회계 보수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박홍조와 지현미(2016)는 비상장기업 중 K-IFRS를 선택한 기업과 K-GAAP을 선택한 기업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그리고 개별재무제표는 대상의 차이뿐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고,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회계적 이익조정만 이용하고 실물적 이익조정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는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K-IFRS를 선택한 기업과 K-GAAP을 선택한 기업의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을 모두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둘째, 2014년부터 시행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 이후에 K-GAAP과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간의 이익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비상장대기업의 분류기준인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과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간의 이익조정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비상장대기업 구분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담당자에게 비상장기업의 어떤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더 회계품질이 높은지와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Ⅲ장은 연구모형과 표본선정을 기술한다. 제Ⅳ장은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결론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의 설정

1. 우리나라의 K-IFRS 도입과 비상장법인의 K-GAAP 및 K-IFRS 적용 현황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국 기업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의 참여자와 재무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단일화된 국제회계기준인 K-IFRS를 제정하였다. 특히, 2002년 엔론사태 등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이 발행한 이후 미국 회계기준(US-GAAP)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IFRS 제정이 필요하였고, 2005년 EU 국가들을 비롯하여 필리핀, 남아프리카,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IFRS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상장법인의 경우 2009년 선택적용을 거쳐 2011년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의무 적용하였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2009년 5월 별도의 K-GAAP를 마련하여 주(主) 회계기준으로 하고, K-IFRS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적용대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회계기준과 적용대상

회계기준	적용대상	외부감사	관련 법령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의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K-IFRS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문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국제회계기준³⁾을 근거로 제정한 회계기준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근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작성됨으로써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내재가치 등의 의미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융자산과 부채 및 유·무형자산

2) <표 1>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3)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와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에 공정가치 측정을 의무화하거나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 등에 대해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K-GAAP은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작성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회계기준으로 회계주체별 기준서 형태로 산재된 기존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만 인정하고, 영업권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 등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 특례조항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작성부담을 완화하였다.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작성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작성 비교

투자회사		종속회사	관계기업(지분율 20% 이상)	재무제표
상장기업 (K-IFRS)	연결(主)	○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별도	×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별도재무제표
비상장기업 (K-GAAP)	연결	○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개별(主)	×	○(지분법)	개별재무제표

주 :

1. 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는 모두 K-IFRS에 의해 작성하고 별도재무제표도 작성
2.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는 K-GAAP에 의한 재무제표를 주(主) 재무제표로 작성하지만, 선택적으로 K-IFRS 기준에 의해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도 작성 가능
3. K-IFRS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공정가치법만 적용하다 2016년부터 지분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됨.

또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新외부감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이 중 비상장법인의 K-GAAP 적용기업도 K-IFRS 적용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2019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던 비외감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대상에 포함되어 연결 대상기업이 K-IFRS 적용기업과 K-GAAP 적용기업 간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K-IFRS가 선택적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한 기업은 2010년 84개 회사에서 2017년 1,783회사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한 기업도 2010년 17개 회사에서 2017년 599개 회사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비상장법인 대비 K-IFRS 적용 기업도 2010년 약 0.6%에서

4) 한국회계기준원의 국회 답변자료 중 일부이다.

2017년 약 9%로 증가하였다.

〈표 3〉 비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K-IFRS vs K-GAAP) 작성현황⁵⁾
(단위 : 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개별 K-IFRS	84	1,024	1,177	1,374	1,443	1,623	1,625	1,783
개별 K-GAAP	15,526	15,401	15,467	17,561	19,041	19,482	21,536	23,304
소 계(A)	15,610	16,425	16,644	18,935	20,484	21,105	23,161	25,087
연결 K-IFRS	17	241	284	345	390	545	508	599
연결 K-GAAP	1,199	1,131	1,378	1,245	1,316	1,292	1,346	1,410
소 계(B)	1,216	1,372	1,662	1,590	1,706	1,837	1,854	2,009
합 계(C=A+B)	16,826	17,797	18,306	20,525	22,190	22,942	25,015	27,096

주 : 연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K-IFRS 적용회사는 정기주총 후 2주 이내, K-IFRS 미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임.

2. 선행연구의 검토

K-IFRS 도입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들은 ① IFRS 자발적 도입기업 및 비자발적 도입기업간 이익조정 변화, ② IFRS 도입 전후 이익조정 변화, ③ IFRS 도입국가와 미도입국가 간 이익조정 차이, ④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효과를 알아본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첫째, IFRS 자발적 도입기업 및 비자발적 도입기업간 이익조정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가 있다. Tendeloo and Vanstraelen(2005)은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규모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독일 자국의 회계기준과 IFRS 하에서 작성된 이익의 질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제시하였다. Christensen et al.(2008)은 의무도입 기업과 자발적 도입기업의 이익의 질을 분석한 결과, 의무도입 기업의 이익의 질은 낮아지며, 자발적 도입 기업의 이익의 질은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Ahmed et al.(2010)은 IFRS 의무도입 전후의 보수주의, 이익유연화 손실 및 이익의 적시성을 2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IFRS 자발적 도입기업과 비자발적 도

5) 금융감독원의 국회답변자료 중 일부이다.

6) K-IFRS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K-IFRS 도입 이후 이익의 가치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들도 존재한다(이성엽 외 2013, 권혁진 외 2014, 최성호 외 2016).

입기업간 이익조정에 대해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하거나,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는 등 일관성 없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문현주(2011)는 K-IFRS 조기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K-IFRS 도입으로 회계적 이익조정 규모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IFRS 조기도입 이후 해당 기업의 발생액 규모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박현영 외(2012)는 2010년과 201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K-IFRS 도입이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투입시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K-IFRS 도입 전보다 후에 재량적 발생액 수준은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상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이익조정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태(2014)는 2008년부터 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K-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K-IFRS 도입 전보다 후에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 4 감사인보다 non-Big4 감사인일 때 더 감소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차승민 외(2014)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회계적 이익조정 규모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국내기업의 재무회계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K-IFRS 조기도입 기업에서 회계적 이익조정규모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K-IFRS 의무도입 기업에서 회계적 이익조정규모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 도입이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K-IFRS 도입 이후 이익조정이 감소했다는 실증분석이다.

그리고 김세로나 외(2012)는 2009년과 2010년도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도입 후의 재량적 발생액이 해당 기간 내에 미도입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태범(2013)은 K-IFRS 도입과 이익조정의 연구에서는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손정근과 배기수(2014)는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의무도입 전과 후에 회계투명성이 증가했는지를 연구한 결과, K-IFRS 의무도입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영업활동을 통한 실제 이익조정은 평균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의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K-IFRS 도입 이후 회계적 이익조정은 감소하고 실질적 이익조정은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문현(2015)은 2011년부터 2013년도 기간 동안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수단인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은 별도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적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총자산,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기업특성 변수들이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가 나타나 기업특성에 따라 연결을 통해 이익조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K-IFRS 도입 이후 이익조정에 영향이 없거나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실증분석이다.

또한, 배동수와 최수미(2013)는 K-IFRS 도입 전·후의 이익조정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 비정상영업활동현금과 비정상제조원가를 통하여 이익조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수준별 이익조정 방향성을 통해 도입시점에서의 이익 상향조정 현상은 이익의 수준이 0에 약간 미달하는 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이 0보다 매우 컸던 기업은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이익의 수준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할 유인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종일과 손호철(2013)은 K-IFRS 적용 전·후 이익조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재량적 발생액과 K-IFRS 적용 전·후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둘째, IFRS 도입 전후 이익조정의 변화를 알아본 연구가 있다. Jeanjean and Stolowy(2008)는 IFRS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프랑스,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도입 전후의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 도입 후 3개 국가 모두 이익조정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조정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Cai et al.(2008)은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IFRS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IFRS 도입 국가의 법적 규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이익의 질이 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Soderstrom and Sun(2007)이 제시한 것처럼 IFRS를 도입한 국가의 자본시장의 발전정도와 법적 제도 또는 기업의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으로 IFRS 도입이 재무회계정보의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Li and Park(2012)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이 회계적 이익조정 규모를 변화시켰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FRS 도입 이후 중국기업의 회계적 이익조정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은정 외(2007)는 IFRS를 도입한 국가마다 이익조정의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박상애 외(2011)는 IFRS 도입 이후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이익의 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머징마켓의 경우 IFRS 도입 이후에도 회계적 이익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였고, 또한 IFRS 도입 이후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 간에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IFRS 도입 이후 이익조정의 효과가 국가마다 상이하거나 이익조정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익의 질을 낮게 한다는 연구결과이다.

셋째, IFRS 도입국가와 미도입 국가 간의 이익조정을 비교한 연구가 있다. IFRS 도입국가와 미도입 국가 간 이익조정을 연구한 Barth et al.(2008)은 21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IFRS 도입 기업이 이익조정을 적게 할 뿐 아니라 도입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도 도입 이후가 도입 이전에 비해 이익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의 도입효과를 알아본 연구가 존재한다. 김정애와 최종서(2014)는 2010년과 2011년도에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조정 행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 비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K-IFRS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기회

주의적 이익조정 행위를 약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한 기업에서는 이익조정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승일과 박성중(2018)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여부에 따라 이익조정 성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보다 이익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이익조정의 결과에서는 이익조정의 방향성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비율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일관성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K-IFRS 도입 이후 이익조정이 증가했거나, 상장기업에 비해 비상장기업이 이익조정을 상향조정했다는 실증분석이다. 정아름과 김성환(2016)은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의 회계 보수성이 도입 이전에 비해 도입 이후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며, 자발적 도입 이전에는 미도입 비상장기업보다 더 보수적이었으나 자발적 도입 이후에는 미도입 비상장기업이나 의무도입 상장기업과 동일한 보수성을 나타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박홍조와 지현미(2016)는 K-IFRS를 선택한 비상장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비상장기업들의 이익조정을 비교한 결과, K-IFRS를 선택한 비상장기업이 자의적인 이익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한 비상장기업 중에서 지분법을 적용한 기업과 제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이 자의적인 이익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왜냐하면 박홍조와 지현미(2016)에서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K-IFRS를 선택한 대부분의 비상장기업들은 지배회사의 연결실체에 편입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K-IFRS 도입에 대한 이익조정의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애와 최종서(2014)는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한 비상장기업의 K-IFRS 도입전후를 비교하였을 뿐이며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K-GAAP을 적용한 기업을 비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김승일과 박성중(2018)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여부에 따라 이익조정 성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고, 정아름과 김성환(2016)은 K-IFRS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보수성을 변화를 알아보았다. 박홍조와 지현미(2016)는 본 연구와 유사하게 비상장기업 중 K-IFRS를 선택한 기업과 K-GAAP을 선택한 기업을 비교분석하였으나, 재무제표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이익조정의 측정치로서 회계적 이익조정만 이용하고 실물적 이익조정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K-IFRS를 선택한 기업과 K-GAAP을 적용한 기업의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을 모두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3. 연구가설의 설정

2018년말 우리나라 외감법인인 31,473개이고 이중 상장법인인 2,230개(약 7%), 비상장법인인 29,243개(약 93%)로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에 비해 13배나 많고 향후 상장기업으로 성장·발전할 가능성이 높다.⁷⁾ 이러한 비상장기업의 경우, K-IFRS가 선택적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K-IFRS 적용기업은 2010년 84개 회사에서 2017년 1,783개 회사로 약 21배 증가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K-IFRS 적용기업도 2010년 17개 회사에서 2017년 599개 회사로 약 35배 증가하였다. 또한, 전체 비상장법인 대비 K-IFRS 적용기업도 2010년 약 0.6%에서 2017년 약 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더욱이 비상장기업의 경우 K-GAAP에 의한 재무제표가 주 재무제표이고 K-IFRS에 의한 재무제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법의 선택이 각각 재무제표에서 이익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분하여 연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원칙적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에 의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K-IFRS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 형태로 설정하였다.

가설 1 : 비상장기업의 K-IFRS 기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이익조정은 K-GAAP 기준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이익조정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 : 비상장기업의 K-IFRS 기준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이익조정은 K-GAAP 기준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이익조정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3 : 비상장기업의 K-IFRS 기준 개별재무제표에서의 이익조정은 K-GAAP 기준 개별재무제표에서의 이익조정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7) 2018년말 외감법인인 31,473개이고 이중 코스피는 779개, 코스닥은 1,300개, 코넥스는 151개, 비상장법인인 29,243개이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 1. 23. “2018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III. 연구모형과 표본선정

1. 연구모형

가. 회계적 이익조정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이익조정의 대응치로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을 이용한다. 먼저 회계적 이익조정의 추정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성과조정 DA를 이용한다. 먼저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모형은 다음 식 (1)과 같다. Kothari et al.(2005)의 성과조정 DA는 수정 Jones모형에 ROA 변수를 추가하여 식 (2)와 같이 설정한다.

$$TA_t/A_{t-1} = \beta_1(1/A_{t-1}) + \beta_2[(\Delta SALE_t - \Delta REC_t)/A_{t-1}] + \beta_3(PPE/A_{t-1}) + \varepsilon_t \quad (1)$$

$$TA_t/A_{t-1} = \beta_1(1/A_{t-1}) + \beta_2[(\Delta SALE_t - \Delta REC_t)/A_{t-1}] + \beta_3(PPE/A_{t-1}) + \beta_4ROA_t + \varepsilon_t \quad (2)$$

- TA_t = 총 발생액(순이익-영업현금흐름);
 DA_t = 재량적 발생액;
 NDA_t = 비재량적 발생액;
 $\Delta SALE_t$ = 매출액 변화분(매출액-전기매출액);
 ΔREC_t = 매출채권 변화분(매출채권-전기매출채권);
 PPE_t =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유형자산-토지-건설중인자산);
 A_{t-1} = 기초총자산;

나. 실물적 이익조정의 추정

실물적 이익조정의 추정은 Roychowdhury(2006)의 방법을 따라 비정상 영업현금흐름(abCFO), 비정상 생산원가(abPROD), 비정상 재량적비용(abSGA)를 산업-연도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식 (3)~식 (5) 참조).

$$CFO_t/A_{t-1} = \beta_0 + \beta_1(1/A_{t-1}) + \beta_2(S_t/A_{t-1}) + \beta_3(\Delta S_t/A_{t-1}) + \varepsilon_t \quad (3)$$

$$PROD_t/A_{t-1} = \beta_0 + \beta_1(1/A_{t-1}) + \beta_2(\Delta S_t/A_{t-1}) + \beta_3(\Delta S_t/A_{t-1}) + \beta_4(\Delta S_{t-1}/A_{t-1}) + \varepsilon_t \quad (4)$$

$$DISCE_t/A_{t-1} = \beta_0 + \beta_1(1/A_{t-1}) + \beta_2(S_t/A_{t-1}) + \varepsilon_t \quad (5)$$

- CFO_t = 영업현금흐름;
 A_{t-1} = 기초총자산;
 S_t = 매출액;
 ΔS_t = 매출액 변화분(매출액-전기매출액);

$$\begin{aligned}
\text{PROD}_t &= \text{생산원가}(=\text{매출원가}+\text{재고자산 변화분}) ; \\
A_{t-1} &= \text{기초총자산} ; \\
S_t &= \text{매출액} ; \\
\Delta S_t &= \text{매출액 변화분}(\text{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 \\
\text{DISCE}_t &= \text{재량비용}(\text{복리후생비}+\text{일반관리비}-\text{세금과공과}-\text{감가상각비}-\text{임차료} \\
&\quad -\text{보험료}+\text{판관비}+\text{연구비}+\text{경상연구개발비}+\text{경상개발비}) ; \\
A_{t-1} &= \text{기초총자산} ; \\
S_t &= \text{매출액} ;
\end{aligned}$$

Cohen and Zarowin(2010)은 실물적 이익조정을 하는 기업들 중 대다수의 기업들이 비정상 영업현금흐름(abCFO), 비정상 생산원가(abPROD), 비정상 재량적비용(abSGA)의 전략들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6)과 같이 실물적 이익조정의 대응치들을 총합하여 RM으로 정의하였다.

$$\text{RM}_t = (-)\text{abCFO}_t + \text{abPROD}_t + (-)\text{abSGA}_t \quad (6)$$

다. 연구모형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원칙적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에 대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기 위해 가설 1과 가설 2, 가설 3을 설정하였으며,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모형은 식 (7) 및 식 (8)과 같다.

$$\begin{aligned}
\text{DA}(\text{DA}^{\text{roa}})_t &= \beta_0 + \beta_1 \text{IFRS}_t + \beta_2 \text{SIZE}_t + \beta_3 \text{LEV}_t + \beta_4 \text{GRW}_t + \beta_5 \text{ACFO}_t \\
&\quad + \beta_6 \text{LOSS}_t + \beta_7 \text{BIG4}_t + \beta_9 \text{lagTA}_t + \Sigma \text{YD}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7)$$

$$\begin{aligned}
\text{RM}_t &= \beta_0 + \beta_1 \text{IFRS}_t + \beta_2 \text{SIZE}_t + \beta_3 \text{LEV}_t + \beta_4 \text{GRW}_t + \beta_5 \text{ROA}_t \\
&\quad + \beta_6 \text{LOSS}_t + \beta_7 \text{BIG4}_t + \Sigma \text{YD} + \varepsilon_t
\end{aligned} \quad (8)$$

$$\begin{aligned}
\text{DA}_t &= \text{Dechow et al.}(1995)\text{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 \\
\text{DA}^{\text{roa}}_t &= \text{Kothari et al.}(2005)\text{의 성과조정 DA} ; \\
\text{RM}_t &= \text{Roychowdhury}(2006)\text{에 의한 실물적 이익조정 측정치들의 합} ; \\
\text{IFRS}_t &= \text{K-IFRS 재무제표이면 1, 아니면 0} ; \\
\text{SIZE}_t &= \text{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 \\
\text{LEV}_t &= \text{총부채/총자산} ; \\
\text{GRW}_t &= (\text{매출액}-\text{전기매출액})/\text{기초총자산} ; \\
\text{ACFO}_t &= \text{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 \\
\text{ROA}_t &= \text{총자산이익률}(\text{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
\text{LOSS}_t &= \text{당기순손실을 보고했으면 1, 아니면 0} ; \\
\text{BIG4}_t &= \text{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
\end{aligned}$$

lagTA_t = 전기 총 발생액 ;

ΣYD = 연도별 더미 ;

본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이익조정을 추정하였다. 식 (7)의 종속변수는 이익조정의 수단 중 하나인 회계적 이익조정이다. 회계적 이익조정의 대용치는 Dechow et al.(1995)의 수정 Jones 모형에서 추정한 DA와 Kothari et al.(2005)의 성과조정 DA를 이용한다. 식 (8)의 종속변수는 실물적 이익조정이다. 본 연구에서 실물적 이익조정의 대용치는 Roychowdhury(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실물적 이익조정들의 합이다. 관심변수는 K-IFRS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인 IFRS이다. K-IFRS 작성 기업이 K-GAAP 작성 기업보다 회계적 이익조정을 많이 하면 종속변수 DA(DA^{ROA})와 유의한 양(+)의 값이 예상되며, 실물적 이익조정을 많이 하면 종속변수 RM과 유의한 양(+)의 값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따라 통제변수를 다르게 설정하였다(박종일과 곽수근 2007 ; 박종일과 전규안 2018). 먼저, 회계적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률(GRW),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 당기순손실 여부(LOSS), 대형회계법인제휴 여부(BIG4), 전기 총 발생액(lagTA), 연도더미(YD)이다.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률(GRW), 당기순손실 여부(LOSS)는 기업특성의 변수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Defond and Jambalvo 1994 ; Becker et al. 1998 ; 전규안과 박종일 2012 ; Tong and Miao 2011). SIZE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이익조정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EV의 경우 기업의 안정성 지표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영업현금흐름이 높을수록,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은 BIG4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일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전년도 총 발생액이 반전효과로 인하여 당해 회계적 이익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과 대형회계법인과 제휴 여부(BIG4), 전기 총 발생액(lagTA)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Watts and Zimmerman 1986 ; Beneish 1997 ; Defond and Subramanyam 1998 ; Ashbaugh et al. 2003 ; 나종길과 최관 2003). 실물적 이익조정에도 회계적 이익조정과 같이 기업의 특성이 실물적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를 맺은 BIG4에게 감사를 받은 기업일수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성장률(GRW), 당기순손실 여부(LOSS), 대형회계법인제휴 여부(BIG4), 연도더미(YD) 변수를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추가로 경영성과에 따라 실물적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총자산이익률(ROA)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Kasznik 1999).

2.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 (1) 금융업이 아닌 기업
- (2) 12월 결산 기업
- (3) Fn-Guide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본 연구의 표본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양식이나 회계처리 방법이 일반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기업의 재무자료는 Fn-Guide에서 추출하였으며, 표본의 동질성을 위하여 12월 결산 기업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표본들의 극단치는 더미변수와 자연로그 값을 취한 변수를 제외한 연속변수들에 대하여 모두 상하위 1% 내에서 winsorize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표본은 45,359 기업-연도 자료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에 대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며 연결재무제표의 표본은 4,275 기업-연도이며, 개별재무제표의 표본은 41,084 기업-연도이다.⁸⁾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므로 각각의 재무제표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4>에 제시하였다. 회계적 이익조정 of 측정치 DA와 DA^{ROA} 의 평균값은 -0.053, -0.054로 나타나고 있다. 실물적 이익조정 of 측정치인 RM의 평균값은 0.009를 나타내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 중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14.5%로 나타났으며,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 중에서는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4.3%로 나타났다.

8)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 중 K-IFRS와 K-GAAP 적용기업은 다음과 같다.

구 분	K-IFRS	K-GAAP	합 계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	618(14.46%)	3,657(85.54%)	4,275(100.0%)
개별재무제표	1,780(4.33%)	39,304(95.67%)	41,084(100.0%)

〈표 4〉 기술통계량

변수	Panel A : 연결재무제표(N=4,275)					Panel B : 별도재무제표(N=4,275)					Panel C : 개별재무제표(N=41,084)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중위수	최댓값
DA	-0.053	0.123	-0.268	-0.073	0.447	-0.070	0.113	-0.259	-0.092	0.454	0.006	0.161	-0.268	-0.016	0.447
DA ^{ROA}	-0.054	0.121	-0.284	-0.073	0.438	-0.069	0.110	-0.279	-0.090	0.444	0.006	0.158	-0.284	-0.014	0.438
RM	0.009	0.312	-1.376	0.065	0.648	0.026	0.288	-1.385	0.071	0.671	0.004	0.323	-1.376	0.063	0.648
IFRS	0.145	0.352	0	0	1	0.145	0.352	0	0	1	0.043	0.204	0	0	1
SIZE	18.227	0.900	15.925	18.137	19.997	18.003	0.905	15.924	17.917	19.834	17.003	0.714	15.925	16.845	19.997
LEV	0.607	0.254	0.064	0.628	1.713	0.537	0.272	0.062	0.545	1.734	0.618	0.285	0.064	0.635	1.713
GRW	0.084	0.343	-0.895	0.038	1.175	0.026	0.275	-0.870	0.011	1.108	0.031	0.293	-0.895	0.021	1.175
ACFO	0.065	0.094	-0.237	0.060	0.376	0.053	0.089	-0.235	0.048	0.373	0.055	0.103	-0.237	0.049	0.376
ROA	0.031	0.092	-0.384	0.028	0.313	0.037	0.101	-0.391	0.035	0.319	0.026	0.099	-0.384	0.026	0.313
LOSS	0.233	0.423	0	0	1	0.233	0.423	0	0	1	0.214	0.410	0	0	1
BIG4	0.242	0.428	0	0	1	0.242	0.428	0	0	1	0.111	0.314	0	0	1
lagTA	-0.026	0.094	-0.353	-0.028	0.310	-0.007	0.102	-0.354	-0.011	0.318	-0.026	0.102	-0.353	-0.026	0.310

주) 단, DA_t : Dechow et al.(1995)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DA^{ROA}_t : Kothari et al.(2005)에 의한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 RM_t : Roychowdhury(2006)에 의한 실물활동 이익조정 측정치, IFRS_t : K-IFRS에 의한 재무제표면 1, 아니면 0, SIZE_t :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_t : 총부채/총자산, GRW_t : (매출액 - 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ACFO_t :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_t : 당기순손실을 보고 했으면 1, 아니면 0, BIG4_t : 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lagTA_t : 전기 총 발생액

Panel A : 연결재무제표(N=4,275)

[illegible]

Panel B : 별도재무제표(N=4,275)

[illegible]

〈표 5〉 상관관계분석 (계속)

Panel C : 개별재무제표(N=41,084)

	DA	DA ^{ROA}	RM	IFRS	SIZE	LEV	GRW	ACFO	ROA	LOSS	BIG4	lagTA
DA	1	0.986***	0.195***	-0.046***	-0.038***	0.202***	-0.035***	-0.095***	-0.195***	0.135***	-0.156***	-0.068***
DA ^{ROA}		1	0.149***	-0.051***	-0.040***	0.126***	-0.022***	-0.026***	-0.046***	0.040***	-0.149***	-0.060***
RM			1	0.005***	-0.008***	0.223***	-0.089***	-0.477***	-0.330***	0.184***	-0.119***	-0.042***
IFRS				1	0.242***	-0.052***	0.021***	0.006***	-0.008***	0.031***	0.277***	-0.013***
SIZE					1	-0.191***	-0.016***	0.051***	0.065***	-0.039***	0.341***	0.044***
LEV						1	-0.028***	-0.275***	-0.527***	0.353***	-0.135***	-0.154***
GRW							1	0.211***	0.313***	-0.244***	0.040***	0.044***
ACFO								1	0.500***	-0.329***	0.083***	0.026***
ROA									1	-0.677***	0.090***	0.101***
LOSS										1	-0.009*	-0.086***
BIG4											1	0.003
lagTA												1

주) 단, 변수 설명은 <표 4> 참고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관심변수 IFRS와 이익조정의 상관관계는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에 비해 연결, 별도, 개별재무제표 모두에서 이익조정이 적게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외의 변수를 살펴보면 연결재무제표에서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고, 손실기업일수록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이 증가하며, 성장률 높고, 총자산이익률이 높고, BIG4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았을 경우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기업규모와 실물조정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연결재무제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는 부채비율이 높고, 손실기업일수록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이 늘어나며, 기업규모가 크고, 성장률과 영업현금흐름, 총자산이익률이 높으며, BIG4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을수록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차이분석

<표 6>에서는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과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 간의 주요 변수의 차이검증 결과를 보여준다.

<표 6> K-GAAP 재무제표 작성 기업과 K-IFRS 작성 기업 간 t 검증

변수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K-GAAP	K-IFRS	차이분석	K-GAAP	K-IFRS	차이분석	K-GAAP	K-IFRS	차이분석
	Mean	Mean	t-value	Mean	Mean	t-value	Mean	Mean	t-value
DA	-0.049	-0.072	4.67***	-0.068	-0.081	2.88***	0.007	-0.029	9.87***
DA ^{ROA}	-0.051	-0.071	4.2***	-0.068	-0.080	2.78***	0.008	-0.032	10.84***
RM	0.032	-0.129	9.18***	0.050	-0.111	9.85***	0.004	0.012	-0.89
SIZE	18.173	18.547	-8.32***	17.933	18.418	-11.22***	16.967	17.814	-36.24***
LEV	0.613	0.572	3.73***	0.536	0.539	-0.19	0.621	0.548	11.16***
GRW	0.083	0.090	-0.44	0.023	0.045	-1.68*	0.030	0.060	-4.02***
ACFO	0.063	0.077	-3.2***	0.050	0.073	-5.41***	0.055	0.058	-1.15
ROA	0.030	0.041	-2.47**	0.036	0.040	-0.74	0.026	0.022	1.49
LOSS	0.233	0.236	-0.18	0.233	0.236	-0.18	0.211	0.274	-5.81***
BIG4	0.195	0.516	-15.17***	0.195	0.516	-15.17***	0.093	0.520	-35.78***
lagTA	-0.026	-0.028	0.45	-0.005	-0.022	3.99***	-0.026	-0.032	2.64***

주) 단, 변수 설명은 <표 4> 참고

차이검증은 변수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t-검증하였다.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모두에서 회계적 이익조정의 경우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보다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적 이익조정에서도 개별재무제표를 제외하고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추가로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보다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낮으며 BIG4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t 검증은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제외한 단변량 분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원칙적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에 의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K-GAAP과 K-IFRS 재무제표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가설 1부터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1은 연결재무제표, 가설 2는 별도재무제표, 가설 3은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7>의 Panel A, Panel B, Panel C에 보고하였다.

먼저, <표 7>의 Panel A의 결과를 살펴보면 관심변수인 IFRS는 이익조정 대응치인 DA , DA^{ROA} , RM 모두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보다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

Panel B는 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과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의 이익조정을 비교한 결과이다. 관심변수인 IFRS는 이익조정 대응치인 DA , DA^{ROA} , RM 모두 유의한 음(-)의 값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와 같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 중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보다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이 더 적음을 의미한다.

Panel C에서는 개별재무제표에서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과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의 이익조정을 비교한 결과이다. 관심변수인 IFRS는 회계적 이익조정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실물적 이익조정에서는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별재무제표의 경우에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보다 회계적 이익조정은 적으나, 실물적 이익조정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K-IFRS에 의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은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부분을 실물적 이익조정을 이용하여 만회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7〉 회귀분석결과 (계속)

Panel B : 별도재무제표

Variable	DA			DA ^{ROA}			RM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Intercept	-0.395	-10.72	***	-0.300	-8.23	***	-0.296	-3.22	***
IFRS	-0.015	-3.07	***	-0.015	-2.95	***	-0.138	-11.23	***
SIZE	0.017	8.2	***	0.012	6.11	***	0.018	3.67	***
LEV	0.046	6.87	***	0.020	3.04	***	0.073	4.16	***
GRW	0.010	1.52		0.003	0.45		0.030	1.83	*
ROA	—			—			-0.659	-11.05	***
ACFO	0.022	5.03	***	-0.007	-1.66	*	—		
LOSS	0.041	1.99	**	0.111	5.52	***	-0.007	-0.51	
BIG4	-0.24	-5.48	***	-0.02	-4.65	***	-0.09	-8.30	***
lagTA	-0.110	-6.48	***	-0.096	-5.72	***	—		
YD	포함								
Adj.R ²	0.058			0.034			0.174		
F-Value	19.70***			11.78***			70.44***		
N	4,275								

Panel C : 개별재무제표

Variable	DA			DA ^{ROA}			RM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Intercept	-0.241	-11.82	***	-0.153	-7.56	***	-0.414	-10.46	***
IFRS	-0.010	-2.43	**	-0.011	-2.75	***	0.038	4.92	***
SIZE	0.011	9.67	***	0.007	6.33	***	0.024	10.72	***
LEV	0.088	28.9	***	0.061	20.16	***	0.074	11.66	***
GRW	0.000	0.05		-0.008	-2.82	***	0.007	1.35	
ROA	—			—			-1.096	-46.82	***
ACFO	-0.028	-3.45	***	0.028	3.49	***	—		
LOSS	0.029	13.43	***	0.000	0.06		-0.051	-10.24	***
BIG4	-0.075	-27.96	***	-0.072	-26.85	***	-0.109	-20.95	***
lagTA	-0.062	-8.04	***	-0.068	-8.9	***	—		
YD	포함								
Adj.R ²	0.067			0.037			0.125		
F-Value	210.87***			112.63***			453.07***		
N	41,084								

주) 변수 설명은 <표 4> 참고

4. 추가분석

2014년부터 시행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은 그룹채무제표를 감사하는 그룹 감사인이 부문 감사인에 대해 업무지시 등 강화된 지휘·감독권한을 가짐으로써 그룹채무제표의 감사품질이 향상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결실체중심의 회계감사기준 도입으로 연결감사인에 대한 책임 일원화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배회사 감사인의 책임하에 연결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연결감사의견은 지배회사 감사인 명의로만 표명해야 하므로 연결 중심의 IFRS체제에 부합되며, 연결감사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증대가 기대된다.⁹⁾

따라서 추가분석으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 도입에 따라 회계품질이 높아졌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결채무제표를 이용하여 2014년을 기준으로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수준이 감소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의 결과를 보면 관심변수 ISA가 K-IFRS 표본에서만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연결채무제표에서 K-IFRS 채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들이 2014년 이전 대비 이후에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K-GAAP은 ISA의 계수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국제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채무제표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추가분석 결과(1) :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효과 검증

$$DA(DA^{ROA}) = \beta_0 + \beta_1 ISA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ACFO_t + \beta_6 LOSS_t + \beta_7 BIG4_t + \beta_8 lagTA_t + YD + \varepsilon_t$$

$$RM_t = \beta_0 + \beta_1 ISA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ROA_t + \beta_6 LOSS_t + \beta_7 BIG4_t + YD + \varepsilon_t$$

Variable	DA		DA ^{ROA}		RM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Intercept	-0.359 (-7.76 ^{***})	-0.226 (-2.72 ^{***})	-0.301 (-6.57 ^{***})	-0.160 (-1.97 ^{**})	-0.446 (-4.48 ^{***})	-1.740 (-5.87 ^{***})
ISA	-0.010 (-1.33)	-0.037 (-2.31 ^{**})	-0.010 (-1.37)	-0.039 (-2.51 ^{**})	-0.007 (-0.42)	-0.081 (-1.43)
SIZE	0.016 (6.53 ^{***})	0.010 (2.27 ^{***})	0.014 (5.6 ^{***})	0.007 (1.66 [*])	0.026 (4.81 ^{***})	0.086 (5.5 ^{***})
LEV	0.036 (4.13 ^{***})	0.012 (0.6)	0.014 (1.63)	-0.017 (-0.88)	0.101 (5.13 ^{***})	0.287 (3.86 ^{***})
GRW	-0.005 (-0.85)	-0.048 (-3.41 ^{***})	-0.016 (-2.49 ^{**})	-0.046 (-3.39 ^{***})	0.048 (3.42 ^{***})	0.068 (1.3)

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2.12.12. “국제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전면 개정”.

〈표 8〉 추가분석 결과(1) :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효과 검증 (계속)

Variable	DA		DA ^{ROA}		RM	
	K-GAAP	K-IFRS	K-GAAP	K-IFRS	K-GAAP	K-IFRS
ROA	—		—		−1.011 (−13.97 ^{***})	−1.613 (−7.36 ^{***})
ACFO	−0.001 (−0.04)	−0.068 (−1.39)	0.057 (2.36 ^{**})	0.079 (1.67 [*])	—	
LOSS	0.029 (5.38 ^{***})	0.020 (1.6)	0.004 (0.83)	0.000 (−0.03)	−0.024 (−1.81 [*])	−0.144 (−2.91 ^{***})
BIG4	−0.036 (−6.63 ^{***})	−0.022 (−2.3 ^{**})	−0.031 (−5.87 ^{***})	−0.023 (−2.51 ^{**})	−0.114 (−9.86 ^{***})	−0.009 (−0.27)
lagTA	−0.078 (−3.53 ^{***})	−0.095 (−2.04 ^{**})	−0.085 (−3.87 ^{***})	−0.100 (−2.18 ^{**})	—	
YD	포함					
Adj.R ²	0.045	0.077	0.037	0.054	0.148	0.187
F-Value	14.27 ^{***}	4.96 ^{***}	112.63 ^{***}	3.73 ^{***}	53.90 ^{***}	12.85 ^{***}
N	3,657	618	3,657	618	3,657	618

주) 단, DA_t : Dechow et al.(1995)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DA^{ROA}_t : Kothari et al.(2005)에 의한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 RM_t : Roychowdhury(2006)에 의한 실물활동 이익조정 측정치, ISA_t : 2014년 이후이면 1, 아니면 0, $SIZE_t$: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_t : 총부채/총자산, GRW_t : (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ACFO_t$: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_t$: 당기순손실을 보고했으면 1, 아니면 0, $BIG4_t$: 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lagTA_t$: 전기 총 발생액

두 번째 추가분석에서는 자산규모 1,00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이익조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비상장기업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은 비상장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검토, 표준감사시간 적용,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등 상장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산 1,000억원 이상과 미만인 기업들간 회계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더미변수인 ASD의 계수값을 보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모두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이 회계적 이익조정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상장사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적 이익조정이 적고 회계품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9〉 추가분석 결과(2) : 비상장대기업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text{DA}(\text{DA}^{\text{ROA}}) = \beta_0 + \beta_1 \text{ASD}_t + \beta_2 \text{SIZE}_t + \beta_3 \text{LEV}_t + \beta_4 \text{GRW}_t + \beta_5 \text{ACFO}_t + \beta_6 \text{LOSS}_t + \beta_7 \text{BIG4}_t \\ + \beta_8 \text{lagTA}_t + \text{YD} + \varepsilon_t$$

$$RM_t = \beta_0 + \beta_1 ASD_t + \beta_2 SIZE_t + \beta_3 LEV_t + \beta_4 GRW_t + \beta_5 ROA_t + \beta_6 LOSS_t + \beta_7 BIG4_t + YD + \varepsilon_t$$

Panel A : 연결재무제표

[illegible]

Panel B : 별도재무제표

Variable	DA			DA ^{ROA}			RM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Intercept	-0.676	-11.4	***	-0.587	-9.99	***	-0.853	-5.97	***
ASD	-0.050	-7.8	***	-0.045	-7.1	***	-0.032	-2.1	**
SIZE	0.034	10.27	***	0.030	9.06	***	0.047	5.93	***
LEV	0.031	3.88	***	0.008	1.07		0.117	5.84	***
GRW	-0.008	-1.34		-0.017	-2.9	***	0.052	3.65	***
ROA	-			-			-1.142	-16.07	***
ACFO	-0.019	-0.86		0.056	2.62	***	-		
LOSS	0.025	5.11	***	0.001	0.24		-0.047	-3.47	***
BIG4	-0.029	-6.24	***	-0.026	-5.69	***	-0.113	-10.17	***
lagTA	-0.075	-3.79	***	-0.082	-4.14	***	-		
YD	포함								
Adj.R ²	0.063			0.040			0.156		
F-Value	21.44***			13.64***			61.97***		
N	4,275								

〈표 9〉 추가분석 결과(2) : 비상장대기업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계속)

Panel C : 개별재무제표									
Variable	DA			DA ^{ROA}			RM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회귀계수	t-Value	Pr> t
Intercept	-0.316	-12.71	***	-0.202	-8.17	***	-0.408	-8.44	***
ASD	-0.026	-5.66	***	-0.018	-3.96	***	0.011	1.26	
SIZE	0.016	10.92	***	0.010	7.15	***	0.024	8.61	***
LEV	0.089	29.27	***	0.062	20.43	***	0.073	11.43	***
GRW	0.000	0.07		-0.008	-2.84	***	0.008	1.52	
ROA	—			—			-1.101	-46.98	***
ACFO	-0.028	-3.45	***	0.029	3.52	***	—		
LOSS	0.028	13.3	***	0.000	-0.08		-0.050	-10.15	***
BIG4	-0.075	-28.24	***	-0.072	-27.38	***	-0.104	-20.37	***
lagTA	-0.061	-8.03	***	-0.068	-8.87	***	—		
YD	포함								
Adj.R ²	0.067			0.037			0.125		
F-Value	212.87***			113.23***			451.08***		
N	41,084								

주) 단, DA_t : Dechow et al.(1995)에 의한 재량적발생액, DA_t^{ROA} : Kothari et al.(2005)에 의한 성과조정 재량적발생액, RM_t : Roychowdhury(2006)에 의한 실물활동 이익조정 측정치, ASD_t : 자산규모 1천억 이상이면 1, 아니면 0, $SIZE_t$: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LEV_t : 총부채/총자산, GRW_t : (매출액-전기매출액)/기초총자산, $ACFO_t$: 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ROA_t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LOSS_t$: 당기순손실을 보고했으면 1, 아니면 0, $BIG4_t$: 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 $lagTA_t$: 전기 총 발생액

V. 결 론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15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상장법인의 경우 2009년 선택적용을 거쳐 2011년 모든 상장법인이 K-IFRS를 의무 적용한 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2009년 5월 별도의 K-GAAP을 마련하여 주(主) 회계기준으로 하고, K-IFRS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은 K-IFRS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회계시스템 구축비용, 감사비용, 내부회계 전문가 확충 등)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회계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반회계처리기준(K-GAAP)을 원칙적 회계기준으로 적용하고, K-IFRS는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법인은 K-GAAP이 경제적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이 존재하는 비상장법

인에 대해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간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를 적용한 기업이 K-GAAP을 적용한 기업보다 회계적 이익조정과 실물적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별재무제표에서는 K-IFRS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 K-GAAP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보다 회계적 이익조정은 적게 하지만, 실물적 이익조정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4년부터 시행된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이 비상장기업의 그룹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대해 감사품질을 향상시켰는지를 검증한 결과 2014년 이후 K-IFRS 작성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만 회계적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상장법인중 비상장대기업인 자산 1,000억원을 기준으로 비상장기업 간 회계품질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비상장대기업이 회계적 이익조정을 적게 하여 회계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K-IFRS의 도입이 회계품질을 높인다는 결과로서 향후 비상장법인에게 K-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실제 도입에 있어서는 비상장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거나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의 영향으로 K-GAAP 적용기업도 K-IFRS 도입기업과 같이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의 원칙적 회계기준인 K-GAAP과 선택적 회계기준인 K-IFRS에 대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로 각각 구분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K-GAAP과 K-IFRS 재무제표를 비교·분석한 연구로서 정책담당자에게 비상장기업이 어떤 회계처리방법이 더 회계품질이 높은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K-IFRS의 자발적 도입 전후를 비교하거나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한 반면에 본 연구는 비상장법인 중 K-IFRS를 선택한 기업과 K-GAAP을 적용한 기업의 이익조정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현재는 비상장기업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비상장대기업으로 분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실시, 표준감사시간 적용, 감사전 재무제표 사전 제출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자산 1,000억원을 기준으로 비상장기업 간 회계품질이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여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이 회계적 이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비상장기업 중에서 K-GAAP을 적용한 기업과 K-IFRS를 선택한 기업간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

다. 즉, 비상장기업의 원칙적 회계기준인 K-GAAP을 적용하지 않고 K-IFRS를 선택한 기업은 K-GAAP을 적용한 기업과 여러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본 논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통제변수를 도입하여 이를 고려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영향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지만 생략된 변수(omitted variable)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이익조정의 측정치로 이용된 회계적·실물적 이익조정 측정치의 측정오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넷째, 신국제감사기준(New ISA) 600의 도입효과를 검증할 때 본 연구에서 고려한 통제변수 이외에 New ISA 600의 도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혁진 · 김새로나 · 양동훈 · 조광희. 2013.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비교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 195-218.
- 김경태. 2014. “K-IFRS 제도 변경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감사법인 규모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56권 제1호 : 117-142.
- 김문현. 2015.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상 이익조정의 비교 연구”. 상업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 103-122.
- 김새로나 · 양동훈 · 송언승 · 김진선. 2012. “IFRS 조기도입, 재량적 발생액 및 이익의 정보유용성”. 회계정보연구 제30권 제3호 : 259-299.
- 김승일 · 박성중. 2018.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성향과 부채조달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6권 제1호 : 361-392.
- 김정애 · 최중서. 2014. “비상장기업의 자발적 K-IFRS 채택행위와 이익조정의 관련성”. 회계학연구 제39권 제4호 : 77-129.
- 김종일 · 손호철. 2013. “K-IFRS 적용 전, 후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8권 제1호 : 77-106.
- 나종길 · 최 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 1-32.
- 문현주. 2011. “회계이익의 질적 비교-한국 GAAP 대 IFRS” 경영교육논총 제70권 : 143-162.
- 박상애 · 이남령 · 박상범. 2011.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 이익의 질의 변화 ;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4권 제1호 : 73-96.
- 박종일 · 곽수근. 2007.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회계와 감사연구 제46호 : 191-226.
- 박종일 · 전규안. 2018. “비정상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과 감사품질 간의 관계 재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 9-53.
- 박현영 · 이호영 · 강민정. 2012. “IFRS 도입 전후 이익조정과 감사투입시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54권 제2호 : 529-564.
- 박홍조 · 지현미. 2016. “비상장기업의 회계기준 선택과 보고이익의 질적 수준”. 경영연구 제31권 제4호 : 137-153.
- 배동수 · 최수미. 2013. “K-IFRS 도입과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제18권 제2호 : 117-145.
- 손정근 · 배기수. 2014. “IFRS 의무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연구 제29권 제6호 : 307-329.
- 여은정 · 고운성 · 김지홍. 2007.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국제회계연구 제19집 : 175-201.
- 이성엽 · 김완희 · 오종문. 2013. “K-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 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6호 : 105-132.
- 전규안 · 박종일. 2012. “감사품질이 분기별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9-51.
- 정아름 · 김성환. 2016. “비상장기업의 K-IFRS 자발적 도입이 회계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정책연구 제19집 : 175-201.
- 정태범. 2013.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이익조정”. 회계저널 제21권 제5호 : 115-141.
- 차승민 · 문보영 · 강일주. 2014. “K-IFRS 도입이 회계적 이익조정 규모에 미친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2권 제3호 : 223-250.
- 최성호 · 박종일 · 남혜정. 2016. “K-IFRS 의무도입이 순이익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 연결, 별도, 개별채무제표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89-126.
- Ahmed, A. S., M. Neel, and D. Wang. 2010. The Effects of Mandatory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on Smoothness, Conservatism and Timeliness of Accounting Earnings.” *Working Paper*.
-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 : 611-639.
- Barth, M., W. Landsman, and M. Lang. 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 (3) : 467-498.
- Becker, C., M. DeFond, J. J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Spring) : 1-24.
- Beneish, M. D. 1997. Detecting GAAP Violation : Implications for Assessing Earnings Management among Firms with Extreme Financial Performa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Spring) : 1-24.
- Cai, L., A. Rahman, and S. Courtenay. 2008. The Effect of IFRS and its Enforcement on Earnings Management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Working paper. Massey University.
- Christensen, H. B., E. Lee, and M. Walker. 2008. Incentives or Standards : What Determines Accounting Quality Change Around IFRS Adopt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hicago.
- Cohen, D., and P. Zarowin. 2010.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round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0 (1) : 2-19.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2) : 193-225.
- DeFond, M. L. and J. Jambalvo. 1994. Debt covenant effects and the manipulation of

-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1-2) : 45-176.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 35-67.
- Jeanjean, T., and H. Stolowy. 2008. Do Accounting Standards Matter? An Exploratory Analysis of Earnings Management Before and After IFRS Adop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27 : 480-494.
-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1) : 57-82.
- Kothari, S. P.,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 163-197.
- Li, J. and S. Park. 2012. Earnings Management Effects of IFRS Adoption and Ownership Structure : Evidence from China. *Korean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41 : 121-136.
- Roychowdhury, Sugata. 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 : 335-370.
- Soderstrom, N. and K. Sun. 2007. IFRS Adoption and Accounting Quality : A Review. *European Accounting Review*. 16 (4) : 675-702.
- Tendeloo, B. and A. Vanstraelen. 2005. Earnings Management under German GAAP versus IFRS. *European Accounting Review*. 14 (1) : 155-180.
- Tong, Y. H. and B. Miao. 2011. Are dividend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earnings?. *Accounting Horizons* 25 (1) : 183-205.
-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A Study on the Earnings Management of Non-Listed Firms - Comparison between K-GAAP and K-IFRS Firms -

Hong-Kyu Park* · Yu-Sun Lee** · Kyu-An Jeon***

〈Abstract〉

All Listed Companies are required to apply K-IFRS, while Non-Listed Firms are required to reduce the economic costs and the burden of relatively complex accounting. That's the why K-GAAP is used as the primary accounting standard, and K-IFRS is optionally applicable. However, although K-GAAP has advantages such as an economic cost recently, Non-Listed Firms applying K-IFRS are increasing. This study analyses the difference in the accounting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iming Non-listed Firms applying K-GAAP, the principal accounting standard applied in principle, and Non-Listed Firms companies applying K-IFRS, the optionally applicable accounting standard. Specifically,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screpancies in accounting and physical Earnings Management betwee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for Non-Listed Companies that can select accounting standard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ndicated that Non-Listed Firms which make K-IFRS financial statements in the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have less accounting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than Non-Listed Firms which make K-GAAP financial statements. However, th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noted that the firms making K-IFRS financial statements made less accounting earnings management and made more real earnings management than those making K-GAAP financial statem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Non-Listed Firms applying K-IFRS have less Earnings Management, suggesting the need to expand K-IFRS application to Non-Listed Firms. Seco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ISA 600, which was implemented from 2014, it is shown the accounting earnings management decrease of companies applying K-IFR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f the New ISA 600. Third, it is demonstrated that Non-Listed Firms with assets of over 100 billion won, which i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Non-Listed Large Companies grow lower in accounting Earnings Management than Non-Listed Firms with assets of under 100 billion won.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phk434@gmail.com, First Author

** Ph. D. Student,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2yyus@naver.com,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Soongsil University, kajeon@ssu.ac.kr, Corresponding Author

This paper is the first pap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accounting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of consolidated, separate and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of Non-Listed Firms using K-GAAP and K-IFRS.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results which can help policy decisions on whether policy-maker expand K-IFRS of Non-Listed Firms.

〈Key words〉 Non-Listed Firms, Listed Firms, K-GAAP, K-IFRS,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New ISA 600